

200자 안내

새벽하늘에 향 하나를 피우고

남지심 지음

80년 「여성동아」에 「솔바람 물결소리」를 발표해 등단한 작가로 「우담바라」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소설가가 펴낸 연작장편소설. 월간 「불광」지에 4년간 연재했던 이 작품은 자전적 성격이 짙은 소설로, 끊임없는 구도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중년의 평범한 주부인 강여사가 겪는 일상사를 그려내고 있다.

불광출판부 / A5신 / 298면 / 3500원

우리는 가끔 거실에서 만난다

양인자 지음

소설가이면서 최근에는 방송드라마와 대중가요의 가사로 더 친숙한 작가의 에세이집. 남성의 이율배반적인 순결의식을 꼬집은 「양심과 비밀」 호화혼수에 묻혀 진실한 결혼의 의미를 잃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인 「나의 혼수는 사랑」 등 생활 속에서 흔히 대하는 일들을 소재로 한 짧은 글들이 자못 감동적이다.

보고 / A5신 / 312면 / 4000원

國語科 教育理論과 實際

金利鍾 지음

제주도 교육청 장학관인 저자가 국어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 연구서. 일반적인 교수·학습지도 이론에 대한 기본내용에서 출발해 학습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투입자료로 활용하는가 하는 교육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재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한글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로마자 표기법 등이 부록.

교육과학사 / A5신 / 522면 / 9500원

제1의 大罪(전3권)

로렌스 샌더스 지음 / 최인석 옮김

오만·탐욕·색정·분노를 주제로 삼은 이 소설은 작가의 출세작으로, 탁월한 수사관과 이상범죄자의 추격전을 그린 사이코 스릴러와 경찰소설이 합쳐진 추리소설. 뉴욕경찰의 텔러 니셔장과 출판 대기업의 중역인 범인 블랭크의

숨막히는 대결이 이어지는데, 범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수사관 텔러니는 결국...

한길사 / A5신 / 310면 / 4500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도널드 C 고즈 외 지음 / 김보경 옮김

사회 곳곳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이 많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간단치 않다. 이 책은 문제해결에 앞서 문제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부딪쳐올 인생의 슬한 문제들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문제란 '바라는 사항과 인식된 사항의 차이'라든가 '해결책을 문제의 정의와 혼동하지 말라'는 등의 역설적인 사고방식이 문제를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다.

신세대 / A5신 / 208면 / 4200원

컨설턴트의 비밀

G. M.와인버그 지음 / 고기전 외 옮김

미국의 소프트웨어컨설턴트인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과 인생에 임하는 자기 성찰의 방법을 제시한 책. 컨설턴트란 개인 혹은 기업의 문제나 경영상태에 대한 자문, 지도를 해주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예컨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에 대한 구상과 방침,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유머러스한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21세기북스 / A5신 / 312면 / 5500원

젊음과 哲學의 對話

찰스 에버렛 지음 / 朴求實 옮김

독일 관론 연구의 대가로 불렸던 미국철학자인 저자(1820~1900)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철학이야기를 묶었다. 「어떻게 살 것이냐」의 과학적 담구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인생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에피쿠로스파와 마음의 평정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스토아 학파의 사고방식을 설명한다. 불굴의 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자존심·자신감,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평범하지만 참된 윤리로서 강의하고 있다.

명문당 / A5신 / 270면 / 3500원

마지막 사랑

류진 지음

프랑스의 전설적 샹송가수 에디뜨 삐아쁘의 일생을 극화시킨 전기소설. 곡예사인 아버지와 떠돌이 여가수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에디뜨가 불우한 어린시절을 딛고 샹송가수로 데뷔한 후 장 꼭또 희곡에 출연해 배우로서도 인정받는다. 서민의 생활감정을 노래하며 뛰어난 표현력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던 삐아쁘가 사랑과 결혼에 실패하면서 겪은 인생의 질곡도 생생하게 담았다.

푸른솔 / A5신 / 206면 / 3400원

그리고 나의 남은 이야기

장 그르니에 지음 / 강금희 옮김

추억과 회상, 독후감과 여행기 등이 담긴 그르니에의 철학적 산문집. 그의 사망 이틀날 출판돼 화제가 되기도 했던 표제작 「미발표 노트」를 함께 수록했다. 표현불가능한 절대적 세계에 도전해 글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했지만 끝내는 그 한계를 절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회의주의자, 그러면서도 이상주의자였던 작가의 면모를 읽어낼 수 있다.

청하 / A5신 / 154면 / 3000원

신입사원 기초지식

사카가와 사키오 지음 / 안영욱 옮김

직장생활의 성패는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저자가 신입사원들이 직장과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인이 된다는 의미에서부터 직장이라는 조직의 성격과 규율, 신입사원이 알아뉘야 할 기초지식과 업무에 관련된 공통된 상식, 社外 인간관계 등을 조목별로 살폈다. 각 장마다 '자기진단' 코너를 마련, 자신의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태학당 / A5신 / 236면 / 4000원

인생과 돈 이야기

서남원 지음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다룬 '인생경제학' 에세이집. 돈 버는 방법이나 전문경제학적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돈과 생활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귀에 익은 속담과 경구를 많이 인용한 위트 있는 문체가 인상적.

도서출판 책 / A5신 / 188면 / 3500원

이런 마음 처음이야

오티 파이프 지음 / 한기상·김윤희 옮김

아동문학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독일의 주부작가가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필치로 열네살 사춘기 소녀가 겪는 첫사랑의 경험을 그린 소설이다.

낙제생인데다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싸여 고민하는 주인공 니콜이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소년 악셀을 만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는 이야기.

청림출판 / A5신 / 208면 / 3500원

여기서는 아무것도 살아가지 못한다

제리 홉킨스 외 지음 / 조형준 옮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60년대말 격렬하면

서도 시적이며 매혹적인 음악과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무대공연으로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군림했던 록그룹 '도어스'의 리드 보컬 짐 모리슨의 일대기. 이 책에는 짐 모리슨의 격렬했던 삶과 예술, 그룹 도어스의 탄생과 베일에 싸인 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된 도어스 시대의 생생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다.

청담사 / A5신 / 392면 / 4800원

여보 난 당신의 무엇인가요

채재철 지음

현재 부산 MBC제작부장으로 있는 저자가 오랫동안 '여성살롱'이라는 프로를 제작하면서 체험하고, 청취자들과 교감해왔던 내용들을 모았다. 30대 후반의 주부를 1인칭으로 내세워 허물없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일상속의 이야기 50여편을 다양한 형식에 담고 있다. "남편들에게 하고 싶었던 아내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싶다는 것이 이 책에 거는 저자의 바람이다.

성우 / A5신 / 264면 / 4000원

우리시대의 四季

김국태 지음

1969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중견작가의 다섯번째 작품집. 「과거를 어금니에 물고 살아」 「기성세대 이분법」 「우리시대의 四季」 등 모두 12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작가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와 우리시대의 세태를 예리한 필치로 꼬집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이번 작품집에서 이 시대 기성세대들을 하나로 묶는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宇石 / A5신 / 316면 / 4500원

미양생(전3권)

李漁 지음 / 강영수 옮김

중국의 원나라 때인 1300년대 초반, 산서성을 무대로 괴걸스런 인물 미양생이 호색을 즐기다 파멸, 불문제로 귀의한다는 내용의 「육포단」을 역사가 중국의 성의학과 결부시켜 옮긴 소설. 「미양생전」이란 제목으로 서울경제신문에 연재했던 이 소설은 원작자가 당시의 시대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라고 한다.

까치 / A5신 / 각 330면 내외 / 각 5000원

마음을 사로잡는 감성마케팅

平島廉久 지음 / 한국교육훈련원 옮김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이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함에 따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편리함에서 즐거움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 「편리함시대」의 중요개념으로 美·遊·潤을 제시한다. 이들 개념에 따라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본의 시장환경 변화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깊다.
교육정보센터 / A5신 / 204면 / 4000원

母川

김도희 지음

미국에서의 오랜 체험을 담은 작가의 중·단편집. 여성특유의 감수성이 돋보이는 단편 「병풍」「부활절」「원천」「유년」은 어린시절의 추억과 삶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보여준다. 「외교관의 딸」「그리운 삶의 아이들」「모친」 등의 중편은 동화적 상상력과 함께 오랜 연륜에서 비롯된 '삶의 미학'이 담겨 있다.

문화행동 / A5신 / 332면 / 4500원

연관된 철학의 문제들

모리츠 술릭 지음 / 안종수 옮김

과학에는 체계가 있을 수 있지만 철학에는 체계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친 논리실증주의 학파의 창설자 모리츠 술릭의 대표적 저서를 옮긴 것. 정신 물질 자아 자유 등 자연과 학적 실존적 체계념들을 철학에 끌어들이므로써 기존의 전통적 형이상학에 반기를 들고 현대 철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논리실증주의, 즉 신실증주의의 요체를 밝혀놓았다.

고려원 / A5 / 308면 / 4800원

겨울늑대

최자웅 지음

인천 송림동에서 빈민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최자웅 신부의 두번째 시집. 우리가 몸담고 선 현실을 "거대한 꿈과 이념의 공황상태"라 파악하는 시인은 이같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맞서싸우는 용기를 장엄한 겨울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현실을 노래하면서도 그 모순과 갈등을 들추기보다 그것과 싸우면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끈질김과 위대함을 그리고 있다"고 신경림씨는 평하고 있다.

한울 / A5신 / 152면 / 3000원

아리랑

남 웨일즈 지음 / 조우화 옮김

현대중국 공산주의혁명 운동 당시 중국 공산당 지하당원으로 맹활약했던 한국인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생애를 그린 전기. 1937년 당시 32세이던 김산을 미국인 여기자였던 저자가 직접 만나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엮은 이 책은 70년대 국내에 번역소개되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읽히기도 했던 것. 당시의 화보를 첨가하여 새롭게 개정 증보한 것이다.

동녘 / A5신 / 352면 / 5000원

버지니아 울프 사랑과 문학

아로 로젠블라트 지음 / 홍영남 옮김

감수성 짙은 작가로서 맹렬한 여권운동가로

서 여성의 독자적 개성과 고유의 사고를 일깨웠고 강인하고 확고한 위치를 실천에 옮겼으나 평생 우울한 신경쇠약증에 시달려야만 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불행한 가족관계와 남편 레오나드와의 관계, 정치활동, 문학과 철학, 작품 설명과 집필배경 그리고 자살로 끝막은 그녀의 일생을 일러스트와 함께 엮었다.

오월 / A5신 / 186면 / 3800원

어서 가거라

성서와함께 편집부 엮음

구약성서의 출애굽기편을 상세하게 풀이한 해설서. 본문을 8부로 나누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각종의 참고사진과 그림을 풍부히 실은 한편 부록으로 '이스라엘의 과일절 의식서' 등 갖가지 역사자료도 실어 이해를 돕고 있다. 기원전 13세기경에 벌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탈출사건을 그린 출애굽기를 우리의 현실과 문화에 밀착해서 해석하려 한 것이 특징.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480면 / 6500원

학술지

'91出版學研究(통권33집)

한국출판학회 엮음

[특집] 제5회 국제출판학술발표회 논문 ▲ 다매체경쟁시대에 있어서의 청소년 독서교육 (李正春) ▲ 청소년도서 및 정기간행물 출판 (邵益文) ▲ 중국의 미래를 위한 출판 (宋原放)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출판의 책임 (清水英夫) ▲ 한국에서의 청소년도서출판의 현황과 발전의 방향 (閔丙德) ▲ 코믹 출판부의 신화 (箕輪成男) ▲ 청소년도서의 현실과 과제 (金炳準) ▲ 미래에 대한 전망 (戴文葆) ▲ 중국소수민족 출판에 대하여 (鄭萬興)

[논문] ▲ 王仁박사 일본전수 천자문 考究(안춘근) ▲ 국어과 교육에서의 독서교육에 관한 고찰(민병덕) ▲ 한국 출판 3차정보원의 전개(윤병태) ▲ 동양고전출판의 현대화·첨단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황병국) ▲ 출판광고의 표현문제(오경호) ▲ 한국의 출판정책(변영희) ▲ 중국출판계 건문기(이종국)

범우사 / A5신 / 348면 / 7000원



길고 먼 여정입니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짐짓 찾아 헤매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 때론 침묵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먼길을 떠납니다. 우러나오는 바람만 보고 싶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꿈나무는 바람만 보고 싶고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원하는 책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솔기획

한솔에서 하는 일

출판제작대행·광고기획·전자조판·원고뱅크 등

한솔이 사무실을 좀더 넓혔습니다.
빈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기획실장/디자이너/편집·교정/경 리(PC가능자)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위) 전화 735-4997 / 722-3866 팩시 722-3866